

지역 매아리

부안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선정... 44억 확보

부안군 주산면 황화철(기초 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초생활거점육성 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44억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추진될 주산면은 인구감소로 문화 복지사업 등 거점지역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연계한 사업발굴로 중심지 기능강화를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하나 된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의 결실로 44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주산문화센터조성, 주산체련공원 리모델링, 소나무 산책길조성, 고산계수변생태공원조성, 중심 가로환경정비,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종합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견학·컨설팅 등도 펼쳐진다.

최종남 주산면장은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기초생활거점육성 분야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역량 강화는 물론 주민간의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의 첫발을 디딤에 있어 지속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성공적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해경, 어선법 위반선박검거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무등역 어장 관리선을 이용하여 김양식장을 운영한 선장을 검거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H호(1.41톤, 부안 위도선적, 양식어업, 승선원 2명)의 선장 A씨(78세, 남, 부안거주)는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전북 부안군 소형제도 동방 0.5해리(약1km) 해상에서 어선 H호를 운항하다 위도 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됐다.

선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톤 미만의 무등역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종과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수리 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검사를 실시해 해양안전 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오베이콜 동무들이 모두 모여라'

고창군, 제4회 운곡습지 생태관광 페스티벌 개최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회장 김동식)가 오는 19일 고창읍 신월리 호암마을에서 제4회 운곡습지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운곡습지 생태관광 페스티벌의 주제는 운곡습지마을 주민과 고창군민이 함께하는 '오베이콜 동무들이 모두 모여라!'이며, 습지마을 주민, 관광객, 관련 단체들이 모여 운곡습지마을의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보전을 약속하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꾸며진다.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난타공연

으로 시작해 아산초, 대야초 재학생들의 악기연주와 댄스공연, 판소리 보존회의 민요 메들리 등 다양한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아울러 습지마을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오베이콜 예코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보물찾기, 화냥꿀을 이용한 달래이경주, 투호, 장기자랑, 우리동네 자랑 등 '오베이콜 한마당'이 진행된다.

또한, 고창탐사르갯밭센터와 새만금지방환경청 협조로 토끼어리만들기, 조개슈링클스 만들기, 진드기 퇴치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되며, 오베이콜 토요일장에서 판매하는 운곡습지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키우고 만든 농산물도 판매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생태관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행하기 좋은 계절, 원시 자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고창운곡탐사르갯밭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해 열린 정읍사문화제.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

정읍사문화제 19일부터 21일까지 정읍사공원에서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제29회 정읍사문화제가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정읍사 공원 및 정읍천변 일원에서 펼쳐진다.

축제 개막식은 19일 오후 6시 정읍사 공원 특설무대에서 부도상 시상식과 함께 시작되어 경관조명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정읍사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는 기존에 음면동경연 또는 음면동 수상팀 및 초창팀의 참여로 꾸려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전국 공모를 통하여 전국에서 40여팀이 참가한다. 특히 타시군의 축제에 참여했던 우수한 퍼레이드 단체들이 참가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볼품 뛰는

퍼포먼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퍼레이드는 아양교를 시작으로 정동교를 걸쳐 정읍사공원까지 이르는 1.3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우수한 가두행렬을 펼친 14팀은 비노출시사를 통해 선발되어 시상하게 된다. 다양한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으로 정읍사문화제가 개최되는 정읍사공원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높은 인기를 끌었던 '정읍사 러브 판타지 쇼'는 단순 불꽃놀이를 넘어 올해에는 레이저와 서치라이트를 가미한 3차원 경연 또는 음면동 수상팀 및 초창팀의 참여로 꾸려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전국 공모를 통하여 전국에서 40여팀이 참가한다. 특히 타시군의 축제에 참여했던 우수한 퍼레이드 단체들이 참가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볼품 뛰는

또한 정읍천변 일원에 꾸며질

경관조명은 지자체 상징 등을 비롯한 다수의 유등 그리고 다리(아양교, 정동교)LED조명 등을 확대 설치해 정읍을 대표하는 축제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연계해 주무대인 정읍사공원에도 정읍의 상징인 단풍나무, 구절초, 원앙, 금성과 정읍사여인의 스토리를 가미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축제일정으로는 19일에는 채수외래와 정읍사여인제례, 개막식 및 축하공연이, 20일에는 KBS전국노래자랑, 정읍사 가요제 등 노래 한마당이 펼쳐지고, 21일에는 제2회 정읍메이플스타오디션 페스티벌 등이 늦은 밤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정읍시립국악단이 개회식 축하공연에 참여하여 개막식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정읍시립국악단, 전국체전 축하공연으로 분위기 UP

오는 18일까지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지난 12일 밤 7시에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정읍시립국악단(단장 주호중, 이하 국악단은 전북도립국악원, 전주시립국악원등과 함께 개회식 축하공연에 참여하여 개막식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국악단에서는 연주부와 참곡부 등 23명이 전라북도 내 예술단체와 함께 출연하여 '동학으로 바꾼 사람이 우선인 세상', '천명' 등의 공연을 펼쳐 전국체전 성화 점등식 축하공연을 펼쳤다. 금년에도 국악단은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의 흥과 신명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가져왔다.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통해 관내 단체나 음면동 행사 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0여회의 출장 공연을 가졌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보름밤 상설공연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봐'를 정읍시공원에서 매일 상설 공연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추석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한 한가위 특별공연을 준비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국악의 대중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상설공연 중인 '달님에게 소원을 말해봐'는 아외 공연인 관계로 이달 23일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연은 막을 내린다. 이날에는 우리지역 대표가수 정주와 초청가수 변진섭 등이 함께 출연하여 국악단과 함께 깊은 가을의 정취를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25일과 26일에는 정읍의 문화자원 상춘곡의 작가 정경인을 소재로 하는 소리극 '불우한 몸'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식농업 발전에 앞장서다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 참가자 오는 18일까지 모집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오는 11월 17일 '제2회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 주관으로 고창군 상하농원에서 개최한다.

전국단원 행사로 올해 2회를 맞은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은 농업인의 지식역량 강화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브랜드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여 브랜드를 활용한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와 참가자들의 농산품 브랜드 홍보 전시, 축하공연, 고창다섯거리 아카데미 종강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경진대회의 서류접수는 오는 18일까지로 신청대

사자는 농업(수산업포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과 단체, 법인 등이며, 3개 분야 'B·I 패키지 디자인' 분야, '마케팅 아이디어' 분야, 전북대 LINC+사업단에서 후원하는 특별섹션 '청년농업인' 분야에 신청가능하며 중복 참가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통해 1차 합격자 21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11월 17일 본선 1PT 심사를 통하여 대상 1팀, 각 분야별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4팀이 가려지게 된다. 대상은 농촌진흥청장상으로 500만원이 주어지게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브랜드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홍보를 통해 농생명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 홈페이지(<http://gofarmfarm.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감싸주어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GIF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 SET 3호 | 750ml 1ea/12%

GIF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 SET 5호 | 375ml 5ea/13%

GIF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84-8960
www.gangsanwine.com